

[종합·해설]

鄭 “가족 행복시대 만들겠다”

李 “진학·취업, 빈곤층 우선”

정동영 선대위 공식 출범

UCC·모바일 주력...외부수혈 과제

대한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가 28일 당내 계과를 총망라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 대선 향배의 맛을 올렸다.

이로써 정 후보는 지난 15일 후보 확정 이후 2주 만에 당 내부 통합을 마무리했으나 ‘인물난’으로 외부 영입 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외부수혈을 통한 2단계 선대위 보강 작업을 향후 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대한통합민주당은 28일 오후 서울 수유리 통일교육원에서 선대위 발족식과 함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손학규 전 지사, 이해찬 전 총리,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오충일 신당 대표를 임명했다.

또한, 신당 대선경선에 나섰던 한명숙 전 총리가 선대위 최고고문, 유시민 의원, 신기남 의원, 천정배 전 장관, 김두관 전 장관, 추미애 전 의원이 상임고문을 맡았다.

한 전 총리와 천정배 의원, 추미애 전 의원은 정 후보와 함께 가족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날 발족한 정 후보 선대위의 핵심 조직은 ‘가족 행복 위원회’로 꾸려져 있다. 정 후보가 표방하는 대중 지향형, 유권자 창조형 콘셉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으며 ‘선대위원의 선대위’라고도 불린다.

유권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책이



대한통합민주당 정동영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수유리 통일교육원 야외무대에서 열린 선대위 발족식에서 당원들의 환호속에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각종 아이디어, 민원 등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 공약으로 연결하는 ‘쌍방향 선거운동’의 베이스캠프 격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자발적 서포터스 중심으로 대중 조직을 확산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배기선 의원과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모바일선대위’는 ‘가족행복위’와 함께 ‘대중 참여 선거운동’을 담당할 ‘쌍두마차’로 꼽힌다.

모바일 공간에서의 정책 제안과 토론 등을 활성화, 신당 경선에서 보여준 ‘모바일 파워’의 위력을 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명박 후보의 ‘성공’ 슬로건과 대비되고

있는 ‘차별없는 성장위’(위원장 정세균, 홍재형)는 ‘가족행복위원회’와 선대위의 양대 산맥이다.

산하에는 중소기업 강국, 평화경제실천, 신성장산업, 전통산업발전위가 설치, 경제정책 공약의 맥을 잡고 있으며 ‘2020 국가비전위’는 정책좌표의 균형추를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국민통합추진위’도 선대위의 핵심 조직이다. 지역통합, 사회협약, 사회적 차별철폐, 저소득층대책 등 4개 본부로 구성됐으며 약자 보호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작업에 초점을 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7대 복지프로젝트 발표

불임·분만 등 무료 추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8일 진학과 장학금 지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시 등에 일정 비율의 빈곤층을 우선 배려하는 제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의 복지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라는 복지정책 공약 발표를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는데 실질적인 힘을 주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 설립 법안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노년층 보호를 위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및 고령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확대에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드리겠다”면서 “기초 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취업 및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2만명씩 5년간 총 10만명의 청년 장애훈로 지원하고, 장애인 24시간 운영체제 구축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특별보훈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도 다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행정복합도시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더욱 보완해 교육, 문화, 생산 등 모든 것이 함께 이뤄지는 도시로 발전시켜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가 28일 충북 충주시 충무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성공대장정 축하대회에서 2030블루파워 서포터스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약속했고, 현재 60%선인 암 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 밖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체제 구축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특별보훈연금제도 도입,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도 다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행정복합도시 추진 방향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더욱 보완해 교육, 문화, 생산 등 모든 것이 함께 이뤄지는 도시로 발전시켜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회창 ‘대선 3수’ 결단 임박?

최근 면담 인사 부쩍 늘어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가 무소속 대선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재는 최근 10여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자신의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 확실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지만 당 안팎에서 어떤 쪽이든 간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치적 결단’에 대한 압박도 더해지는 분위기다.

이를 시사하듯 이 전 총재의 서빙고 자택에는 최근 이 전 총재를 면담하려는 인사들이 부쩍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것은 이 인사들 가운데에는 이 전 총재의 대선 출마설에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이명박 대선후보측 인사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과거 대선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들이거나 자신의 대선 출

마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사들로 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법률특보를 지냈던 정인봉 전 의원은 지난 25일 이 전 총재의 자택을 방문해 대선 출마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28일 “개인적으로 이 전 총재가 출마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이 전 총재와 식사를 함께 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전 총재의 아랫사람들이 (출마를 위해) 움직인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전 총재가 이르면 이번 주초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 전 총재의 한 측근은 “이번 주 초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께 부담 주는 사고 안 냈다”

고향 김해 찾은 盧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7일 고향인 김해시를 방문, 대통령 퇴임 이후 고향으로 귀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그동안의 국정운영에서 나라와 국민에 부담을 주는 큰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김해시청을 방문, 지역 주민들과의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국정운영과 관련, “취임 이후 성실성의 것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때로 잘못된 것도 있으나 나라와 국민께 부담을 주는 큰 사고 낸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 고향 본뜰게 인사를 한 번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제일 많이 변호해주고 때로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줄 알고 있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노 대통령은 또 “이른바 ‘말년’이 지나면 공무원들이 눈치보거나 손 놓고 있지 않아서 대통령이 요즘 엄청 바쁘게 일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한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김해시청 방문은 당초 예정에 없던 비공식 일정으로, 고향인 김해시청 방문과 주민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또 하나의 행복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퇴임 후 서울에 남기보다는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국토공간의 균형적 이용, 즉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한다고 생각했다”면서 퇴임 후 귀향 의사를 확신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퇴임 후) 자연생태계 복원과 공동체 되살리기 등에 힘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퇴임 후 활동에 대한 구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불모지 전남에 한나라당 바람 ‘슬~슬’

전·현직 고위 인사 잇따라 입당...외연 확대 본격화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한나라당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전남에서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지역정치인 등의 입당이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매일 일정 금액의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 등 당원수도 크게 늘고 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0월 들어 대외 총장을 비롯 전직 군수 등 고위 공무원, 지방의원 등이 지역의 전·현직 유명 인사 30여명이 잇따라 입당해 이명박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대표적 인사로는 전남도지사 등을 지낸 이군번 전 동산대 총장이 전남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에 위촉됐고 이재현 전 무안군수는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또한 입영은 전 순천교육장은 선대위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광훈 전 광주시 경제통상국장은 농어촌위원장, 임상호 전 순천시 건설국장은 도시교통위원장, 이

재우 전 전남도원의회는 사회복지위원장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신광주 전 고공연의회 의장과 정승태 전 해태제과 대표이사, 김영석 전 광주·전남운수연수원장, 백철우 전 경기수원남부경찰서장, 박창현 전 목포시의원, 염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전 부원장 등도 이명박 후보를 돕고 있다.

특히 전남도당의 책임당원은 지난해 1월 180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5선연영에 잇따라 늘었다. 현재 당원 수도 2만 9천여명에 이르렀다. 박재순 전남도당 위원장은 “한나라당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달라지고 집권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입당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외연확대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전남 지지율을 3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숙기자 who@kwangju.co.kr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개강 |
|-----------|----------------|------|--------|
| 영세자영업자 | 기업사무자동화 인력양성과정 | 3개월 | 11월 1일 |
| 재직자 및 일반인 | 컴퓨터활용실무 | 2개월 | 11월 5일 |
| | CAD | 2개월 | 11월 1일 |
| | MOS(Master) | 2개월 | 11월 5일 |
| | 정보통신실비 | 2개월 | 11월 1일 |
| | 정보처리 | 2개월 | 매월 초 |
| | 정보화 기초 1,2 | 5주 | 매월 초 |

부동산실무

| 구분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개강 |
|-----------|-------|------|---------|
| 재직자 및 일반인 | 공인중개사 | 2개월 | 11월 12일 |
| | 주택관리사 | 2개월 | 11월 12일 |

※ 교육대상 : ■ 영세자영업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자
■ 일반인 및 대학생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6개월 과정 특별반 접수중!!
(주간반, 야간반, 주말반)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강철서점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08년 국가·지방직 합격 대비는 지금부터가 좋습니다 =

7급 공무원

강좌안내

| | | | | | | | | | | | | | |
|-----|-----|-----|-----|-----|-----|-----|-----|-----|-----|-----|-----|-----|-----|
| 행정직 | 교서직 | 관세직 | 감사직 | 법원직 | 검찰직 | 교정직 | 보호직 | 소방직 | 전차직 | 지적직 | 토목직 | 검출직 | 물리화 |
|-----|-----|-----|-----|-----|-----|-----|-----|-----|-----|-----|-----|-----|-----|

◎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 11월 1일 주·야 (종합)반 모집 (전직종서은시직별) (원시제와합수등)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강철서점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al.co.kr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급 공무원 개강 11월

가성비: 행정·교정·법원·세무·감사·경찰·국무·교정·소방·농림·토목·건설·전차·물리·화학·보안·기술직

공무원 이본반 2개월 40시간 (11월 12일 개강)

공무원 문제풀이 1개월 20시간 (11월 12일 개강)

2009년 1차 공무원 시험 대비: 이본반(2개월 40시간), 문제풀이반(1개월 20시간)

기술직 단학반: 농업·보육·건설·소방·전차·물리·화학·보안

한빛공무원학원 www.hanbitgosi.co.kr
광대후문 부영빌딩 2층 ☎234-0234

12월 15일 시험확정!!

돈되는 자격증!! 초창기 시험을 노려라!

‘부동산대출중개사’가 뜬다!

자격기본법(법률 제5733호)에 의해 시행된 협회공인자격
자격취득자 중 취업희망자 추천 원료!! 학생·주부·직장인들에 인기최고!!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

◇대출 전문가 ‘부동산대출중개사’ = 부동산대출중개사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나 경매 등으로 취득한 후 발생하는 자금 부족의 문제점에 대한 상담을 통해 금융기관의 상환을 안내하여 부족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높은 대우와 보수 전망 = 각 금융기관은 대출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요자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인부 공인 중개사나 보험회사 직원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대출중개를 대행하는 전문가의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돈이 급하게 필요한 당신
여기 금융전문가(부동산대출중개사)가 해결합니다.

◇금융전문가가 모자란다.
(한국경제 2006년 5월 17일자 보도)
IMD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세계 꼴찌”
자본시장 통합법 앞두고 업계 인력 보호 비상

◇높은 대우와 보수 전망 = 각 금융기관은 대출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수요자 유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인부 공인 중개사나 보험회사 직원이 활동하고 있을 뿐이어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대출중개를 대행하는 전문가의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직종보다 높은 대우와 보수가 전망되고 있다.

◇자격취득 후 다양한 활동 가능 = 부동산대출중개사들 취득하면

◇대출 상담, 보험, 저축, 투자, 신용, 부동산, 공인중개사 및 경제사무원 등 자금금융과 관련된 업무분야에 취업이 가능하고 전문대졸 중개사 대행사무소나 법무사,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등과 협업도 가능하고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다.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 부동산대출중개사 시험과목은 4과목으로 20제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번엔 치러지는 시험이 합격비결은 출제경향을 철저히 분석한 정보 및 자료 선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주관: 한국전문자격인용협회
모의: 한국금융감독교육원
자격취득상담 / T.1566-0823